

■ 광주지법, 개인 파산·회생 불허 기준 마련

카드깡이나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한 빚을 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파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회생 신청 3개월 내 채무액이 크

게 늘어난 경우 면책이 불허된다. 광주지방법원은 1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유 없는 상속 포기 일부 채권자 편파 변제 상습적인 카드깡 행위 과도한 낭비·도박 빚

불허 불허 불허 불허

개인회생 신청 3개월 내 채무액 급증해도 불허

법원은 개인파산·면책사건 처리 시 채무액이 적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심문에 회부하고, 배우자 명의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형성과정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아울러 개인파산 신청단계에 브로커들이 우편접수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개인파산 면책사건 우편접수

대장을 작성, 신청사건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신청일 3개월 이내에 채무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불성실 채무자로 간주,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또 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 법조 브로커들의 불법 출입을 통제하고,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파산 선고=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불능상태' '채무초과상태' 등에 빠진 개인의 경제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준다.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의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준다. ▲개인회생제도=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빚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

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허위보고나 보고 거부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조정제도를 먼저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사건 신청 이전에 다른 절차를 모색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며 "최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데, 관련 사건 수인을 둘러싼 비리도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구속되는 등 물의가 잇따라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7천930명으로 전년도 1천232명에 비해 644%나 급증했다. 개인회생의 경우 4천166명이 신청, 2005년 2천373건에 비해 75.5%가 증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토토복권’이 뭐길래...

월급 몽땅 투자했다 날린 20대 자살

토토(toto) 복권에 월급을 몽땅 투자했다가 날린 방송국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모 방송국 촬영세트장에서 조명보조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25·광주시 북구 용봉동)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총무과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개월간 월급을 모두 스포츠 토토 복권에 쏟아부었지만 당첨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부모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토토복권이란? 경기 전 승부 예측 축구나 농구 등 운동경기가 시작되기 전 결과를 예측해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 레저 게임. 경기의 승·무·패를 맞히는 '승부식'과 득점·실점을 맞히는 '점수식', 이를 혼합한 '혼합식', 우승자·등수·득점선수 등을 맞히는 '특별식 게임'으로 구성돼 있다. 구입가격은 100원부터이며,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회차로 이월된다. 매주 150억원 가까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1년 10월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가 처음 발매됐고, 야구·골프·씨름·배구 등 모두 6개 종목에 대한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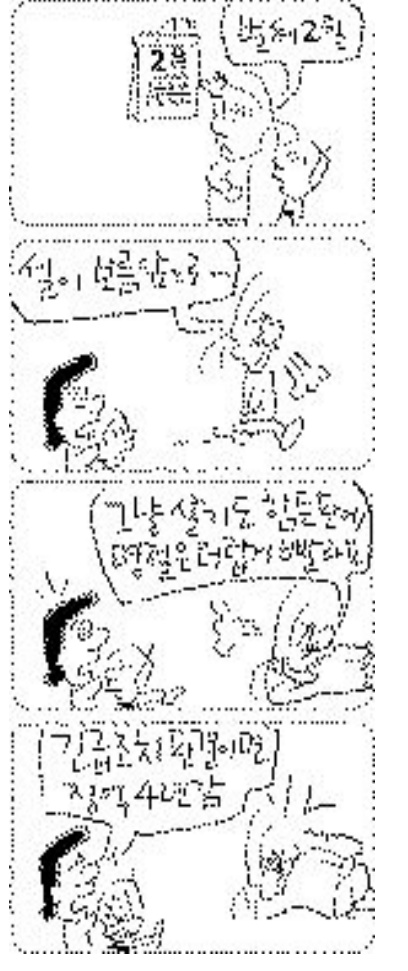
별거 아내 살해하고 투신

별거 중인 4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아파트 16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밤 11시30분께 한씨의 아내 김모(여·45)씨가 남구 방림동 집에서 목에 심한 상처를 입

140억대 국유지 부당 취득 전 세무서 직원 계좌 추적

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전 세무서 국유지 담당공무원 이모(77)씨와 이씨의 친인척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인척 등에 게 부당 매각했다가 국가에 환수 당한 목포·무안·신안 등지의 국유지를 다시 환수보상 또는 특례매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등과 함께 1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관계인들만 30명에 이르고

나원침 (7044) 김장두



광주광역시 중구... 062-367-9000

‘중공검사 불만’ 여주시청 흥기 난동 ○여주시의 한 시민단체 간부가 자신들이 지은 건물의 중공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시정 당국 과장을 낚으로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께 S시민단체 박모(38) 사무국장이 청사 내 허가민원과 김모(55) 과장을 낚으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 ○박씨는 자신의 단체가 지난해 9월 여주시 안산동에 지상 5층 규모의 회관을 건립했지만 시에서 중공검사를 해주지 않자 이날 시청을 찾았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박씨를 공무원행방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 ○여수시 관계자는 “S단체 회관은 인근 B아파트로부터 15m 밖에 안 떨어져 있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중공검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졸음운전’ 시내버스 마트 돌진 5명 부상

지난달 31일 밤 8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77바 37XX'호 봉선 27번 전일 시내버스(운전자 김모·51)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6대를 들이받고, 인근 D마트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여·18)씨와 승용차 안에 있던 서모(23)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첨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운전사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머리가 멍했으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조선대 기술이전 박람회 1일 광주 첨단지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2007 조선대 기술이전 박람회' (Chosun Hope 2007)에서 참가자들이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 특허 이전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50종의 각종 기술이 선보였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일보사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Includes a map of the marathon route, a list of participating companies like GS and Lott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